

한국항만협회 2019 정기총회 성료

한국항만협회가 3월 20일 서울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사업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체회비배정(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국항만협회 정만화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항만법을 개정해 협회가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의 위탁 관리·운영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금년에는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부문에서도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회원사 및 회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및 항만협회장 회의’도 차질없이 적극 준비해 협회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협회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항만기술기준 선진화 용역사업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안전 항만건축 용역, 항만건설공사 작업일수 산정 용역, 인천신항 항만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기술자문 용역을 올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2019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 조사용역’을 올해 12월 까지 추진한다. 4월부터 항만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5월에는 항만기술기준 관리기관 운영 용역,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기술자문 용역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항만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울산항 지하시설물 DB 구축관련 지반정보 입력 사업을 올해 2월까지 완료했으며, 신규사업으로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PortGIS)관리운영 위탁, 항만건설정보시스템 (PortCALS) 관리용역,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관리개선 자문용역 등이 추진된다.

항만협회 2019년 사업예산은 전년 보다 1억 4,700만원 줄어든 41억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대상선 배재훈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상선은 3월 27일 현대그룹 적선빌딩에서 제 43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배재훈 전 범한판토스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도 선임됐다.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는 배재훈 대표이사, 박진기 컨테이너사업총괄을 선임했다. 임기 2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규복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재선임했고, 윤민현 전 장금상선 상임

고문, 송요익 전 현대상선 컨테이너부문 총괄부문을 신규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의 이사회 체제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의 이사진으로 축소됐다.

현대상선의 2018년도 연결매출액은 5조 2,221억원, 영업손실 5,586억원, 당기순손실 7,905억원을 기록했으며 주당순손실 4,139원을 입었다.

해항회 14대 회장에 이용우 전 KOEM 이사장 선출

해운·항만 부문 전직 공무원 단체인 해항회가 3월 21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4대 신임 회장으로 이용우 전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했다.

1976년 해운항만청에서 공식생활을 시작한 이용우 회장은 해운국 진흥과장, 총무과장,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양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대인훼리(주)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35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친목단체인 해항회 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원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수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 사업 내실화로 해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결산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해항회는 올해를 균형, 흑자예산 편성의 원년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회원 친목도모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익 증대와 부채 상환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물류학회 신임 회장에 정태원 성결대 교수

한국해운물류학회 신임 회장에 정태원 성결대 교수가 선임됐다.

해운물류학회는 3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회장 추천 및 수상자 선정 보고 및 시상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정태원 신임 회장은 임기만료된 여기태 회장에 이어 앞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운물류학회를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로 이끌며 기여해왔던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해운물류학회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계획



을 추진한다. 학술지 8회 발간, 정기학술대회 3회, 국제학술대회 1회 개최를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7회 해운물류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는 정기학술대회에 포함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학회 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원 가량 증가한 약 1억원이다.

한국해기사협회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노력”

(사)한국해기사협회는 3월 27일 오전 11시 부산 협성웨딩 13층에서 2019년도 제 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육상에 근무하는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전·현직 협회 임원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활동보고, △2018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했다.

협회 이권희 회장은 “2019년에도 협회의 전략목표인 소통, 대표성, 세력화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특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노력,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쉽의 연구 및 참여, 선원연금제도에 대한 검토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허성국(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상현((사)한국도선사협회 회장), 김형철(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해운 일선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에 박관택(범진상운(주) 사장), 조성래(팬오션



(주) 기관장) 등 모범 및 유공해기사 총 3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포상자 명단〉

△감사패 : 허성국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상현 (사)한국도선사협회 회장, 김형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본부장

△공로패 : 박관택(범진상운(주) 사장), 조성래(팬오션(주) 기관장), 황남석(동진해무(주) 사장), 김연호((주)IMS KOREA 사장), 이세향(주)지마린서비스 기관장, 염웅일(KLC에스엠(주) 기관장), 정 용(현대상선(주) 사장), 송시규(고려해운(주) 기관장)

대한해운, 최승석 사내이사·우예종 전 BPA사장 사외이사 신규선임

대한해운은 3월 27일 강서구 마곡중앙로 SM R&D센터에서 제52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승석 SM그룹 경영관리본부장을 사내이사를 신규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승석 사내이사는 현재 SM하이플러스(주)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병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실수 일우회계법인 이사가 선임됐다. 대한해운은 2018년 연결매출액 1조 3,346억원, 영업이익 1,437억원, 당기순이익 869억원을 기록했으며, 주당순이익은 3,488원을 거두었다.

해양산업총연합회 정총에서 18개 단체장 변경 의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2019년 정기총회가 3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돼 2018년 사업결산과 2019년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한해총 정기총회에는 40여명의 해양산업계 대표들과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과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해총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대국회 및 정부협력 증진 △초중고생 대상 해양교육 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해양산업 동반발전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 확대가 강조됐다. 관련사업으로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승선체험 시행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항만견학 행사 시행, 청소년 해운교양교재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 자리에서는 부산북항에 청소년의 해양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원의 건립안도 제안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양수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중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해총 총회에서는 최근 바뀐 회원단체의 대



표 변경과 임원 승계안도 의결됐다. 변경된 단체장은 △한국선주협회(정태순 회장) △항만물류협회(김종성 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김기웅 이사장)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이재훈 회장) △해양수산연수원(이동재 원장) △항로표지기술원(박계각 원장) △검수검정협회(유영훈 회장) △해양소년단연맹(정호섭 총재) △해양과학기술원(김용서 원장) △해운대리점협회(원경희 회장) △한중카페리협회(전기정 회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조승환 원장) △부산항만공사(남기찬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차민식 사장) △해법학회(조성극 회장) △해운물류학회(정태원 회장) △해사법학회(이윤철 회장) △부산해사고등학교(정재근 교장) 등 18개 단체이다.

팬오션 김흥국 회장 · 추성엽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영업익 2,039억원

팬오션은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과 추성엽 팬오션 대표이사 사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아울러 천세기 팬오션 윤리경영실장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는 최승환 전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크리스토퍼 아난드 다니엘 Advocatus Law LLP Founding and Managing

Partner가 재선임됐고 오광수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규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주포괄위임 갱신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팬오션의 2018년 연결매출액은 2조 6,683억원, 영업이익 2,039억원, 당기순이익 1,486억원을 거두었으며 주당순이익은 285원을 기록했다.

현대중 가삼현 사장 · 한영석 사장 사내이사 선임

현대중공업이 3월 26일 울산 동구 한마음 회관에서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가삼현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한영석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임석식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임석식 사외이사와 윤용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조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전년 대비 51.5% 늘어난 90억9천 3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혁



신적 원가 절감, 기술과 품질 혁신을 통해 반드시 흑자를 달성하고, 세계 제일 조선 해양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고(별도기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8조 667억원, 영업손실 3,337억원을 기록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9년 경영 계획을 매출 8조 5,815억원(별도기준), 수주 117억 달러로 발표했다.

CJ대한통운 박근희 부회장 대표이사 선출...영업익 2,326억원

CJ(주) 박근희 부회장이 CJ대한통운의 신규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CJ대한통운은 3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박근희 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박근태 이사장을 재선임하는 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박 부회장이 CJ대한통운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되면서 대한통운은 박근희 부회장, 박근태 사장, 건설부문에 김춘학 부사장 3인 대표 체제로 개편됐다.

삼성생명에서 대표이사과 부회장직을 역임했던 박 신임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CJ(주) 부회장으로 그

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했으며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관련 M&A를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및 관련 충전인프라 운영 관계서비스, 목재수입 유통업을 신규사업에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 109기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승인받았다. 연결기준 지난해 CJ대한통운 매출액은 9조 2,196억원, 영업익은 2,326억, 당기순이익은 518억원으로 주당 순이익은 1,996원이다.

KSS해운 1주당 현금배당 230원 지급...영업익 471억원

KSS해운은 3월 22일 대일빌딩 본사 회의실에서 제 3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주당 230원의 기말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51억원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 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액 20억원 승인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는 이승우 경영전략본부/경영지원본부 총괄,

박옥재 영업본부/해사본부 총괄이 재선임됐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성오 아이알씨 조사연구소 대표이사가 재선임됐다.

KSS해운은 2018년 연결매출액 2,025억원, 영업이익 471억원, 당기순이익 208억원을 기록했으며, 주당 순이익 914원을 거두었다.

삼성중공업 배진한 전무 사내이사 선임...영업익 4,092억원

삼성중공업이 3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진한 전무를 사내이사에, 남기섭 전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선임된 배진한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경영지원팀장,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 경영지원팀장 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삼성중공업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 2,65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092억원, 당기순이익은 3,881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주당 순손실은 729원이다.

세방(주) 최종일 대표이사 신규 선임...영업익 114억원

세방(주)가 3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종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1995년 세방에 입사한 뒤 인천지사장, 수도권지역본부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영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정기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정호 본부장도 이사로 신규선임 됐다. 이의순 명예회장, 이상웅 회장, 이지훈 경영관리본부장은 재선임 되었다. 신규 사외이사로 김정대 한올회계법인 대표도 선임됐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판매, 보관 저장업, 컨테이너 수시 및 청소업 등을 신규 사업에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세방(주)는 이번 정관변경이 신규 매출 확대와 사업다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54기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승인받았다. 연결기준 지난해 세방(주) 매출액은 6516억원, 영업익은 114억, 당기순이익 435억원이며, 주당 순이익은 1,908원이다.

(주)KCTC 46기 주총...매출 4,004억원, 영업이익 149억원

(주)KCTC는 3월 22일 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변경, 이사선임 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사 및 감사 선임건과 관련,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신태범 KCTC 회장, 이준환 KCTC 사장과 최승호 상근감사가 재선

임 됐다.

지난해 연결기준 KCTC 매출액은 4,004억, 영업이익은 149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7억원, 주당 순이익은 241원이다.

인터지스(주) 63기 주총...매출 4,924억원, 영업이익 94억원

인터지스(주)는 3월 18일 6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와 정관 일부 변경, 이사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했다. 이사 및 감사 선임건과

관련해서 정원우 대표이사와 이상석 경영지원본부장이 재선임 되었다. 인터지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4,924억원, 영업이익 94억을 기록했다.

홍아해운 박문호 · 오영훈 · 안상원 상무 사내이사 신규선임

홍아해운은 3월 29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문호 상무(특수선영업본부장), 오영훈 상무(CFO), 안상원 상무(회계 담당임원)를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를 신규선임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홍아해운의 2018년 연결매출액은 7,538억원, 영업손실 375억원, 당기순손실 865억원을 기록했다. 주당순손실은 514원이다.

플라리스쉬핑, 작년 당기순익 616억원 창사이래 최대

플라리스쉬핑의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053억원과 1,1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4%, 3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16억원으로 2004년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3월 28일 동사가 발표한 2018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리스쉬핑의 매출액 중 약 66%는 주력인 전용선 사업에서 발생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고, 2016년말 성약한 케이프 선박 4척과 스팟 영업 확

대가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조 대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VALE사와 맺은 25년 장기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VLOC 18척 중 3척을 인도 완료했으며, 18척 모두 IMO 규제를 충족하는 고효율 친환경 선박이다. 이 외에도 동사는 포스코 전용선 계약을 위해 2014년 이후 순차적으로 인도된 4척 또한 해당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